

[TV]

TV 2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KBS1, KBS2, MBC, KBC/SBS, and EBS,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배종옥 "지수 연기하게 돼 행운"

SBS 월화드라마 '내 남자'서 남편 외에도 충격 받은 지수 역

시청자들이 요즘 배종옥(43)과 함께 울고 있다. SBS '내 남자의 여자'에서 하늘같이 믿고 있던 남편(김상중 분)의 외도를 접하고 충격에 휩싸인 현모양처 지수, 더구나 상대가 자신의 딸도 없는 친구 화영(김희애) 이다.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이란 바로 이런 상황. 세상이 무너지는 말일 터. 지수가 충격에 순간적으로 숨을 못 쉬는 과민호흡증후군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다수 주부 시청자들에게 절대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다시 한번 배우 배종옥을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슬퍼하는 모습에서 마치 특유의 맑은 톤을 유지하며 보는 이들의 가슴을 적시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지수를 만난 게 배우로서 행운입니다. 젊었을 때 지수를 만났다면 물론 그때도 연기는 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감정의 깊이, 섬세한 감정은 몰랐을 거예요. 마흔이 넘고, 많은 경험을 했고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 지수를 연기하는 데 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배우가 참 좋아요. 나이가 들면 나 이 든 만큼 그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지수 역은 제때에 잘 맞았고 역할에 참 공감을 하면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석준과는 아마 플라토닉 관계를 유지할 것 같아요. 연기에 몰입하느라 3주간 감기 몸살로 고생하고 일어 할었다는 배종옥. 그러나 잔인하게도 그가 아플수록 '내 남자의 여자'의 시청률은 더 오를 듯하다.

"그(숨 못 쉬는) 연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 감정에 집중하고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연기더군요." 숨 못 쉬는 증상과 함께 그는 앞으로도 계속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배종옥의 지수 연기는 김희애의 화영과 함께 드라마 초반에서부터 화제가 됐다. 두 배우가 마치 기존의 이미지를 맞바꾸듯 변신을 했기 때문. 자의식 강한 도회적인 이미지로 대변되는 배종옥이 착하고 해맑은 가정주부 역을 맡았다는 것은 김희애의 도발 못지않게 색다르게 느껴졌다.

이제 '내 남자의 여자'는 지수의 상대 역으로 석준(이종원)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석준은 지수를 처녀시절부터 짝사랑해온 화가. "지수는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과 별거에

Living TV 리빙토크 최동철의 '별' (오전 10시) - 'IT 카우보이'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견디고 삼성전자의 CEO가 되기까지 파란만장 했던 인생 이야기를 전한다.

국제보청기 - 오래된 보청기(스타키) 보상판매 30% - 견전지(бат데리) 가격인하 - 창업 25년

케이블·위성TV 24일

Large table listing TV programs across various channels including YTN, MBN, KTV, SBS, MBC, OCN, and others, with columns for program names and times.

PBC 광주광역시 방송 FM 99.9 MHz (FM 99.9 MHz) - www.kjpbcc.com

TBN 교통방송 - www.tbn.co.kr

BBS 불교방송 - www.bbs.co.kr